

『황제내경』과 성경의 질병치료이론 비교

주시영 (백석대 기독교철학 박사과정 수료)

I. 시작하는 말

기독교철학의 사명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원리와 방법 등을 성경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비판하는 일이다.¹⁾ 이러한 의도로 본 연구에서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황제내경』²⁾(이하『내경』이라고 한다)의 질병치유에 관한 내용이며, 그 중에서도 5운6기이론³⁾(이하 운.기라고도 한다)이다.

『내경』은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 고대 중국에서 사용된 책이며, 지금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의서들의 원전에 해당된다. 이 경전은 우리에게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자연에 대해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이 책에 따르면 질병 치유의 주된 원리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같다’는 사상에서 비롯된다.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며, 그것 들은 밤낮의 대립과 조화를 통하여 계절의 순환을 만들어 낸다. 모든 계절의 순환은 기온과 기후(자연: 운.기)의 변화를 일으키며, 그 변화는 만물을 생장 生長에서부터 퇴장退藏에까지 이르게 한다. 인간은 그 만물 중에 하나로서 인체에 5장6부⁴⁾(이하 장.부라고도 한다)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사람의 장.부는 인체의 중심기능과 역할을 하며, 자연의 변화에 상응한다. 그 자연과 인체는 표리表裏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자연의 변화는 사람에게 각종 질병발생의 원인과 치유의 근거가 된다. 결국 인간은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존재이며, 그의 질병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 변화의 영향을 받는 데에서도 기인된다고 본다.

한편 성경도 질병치유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주셨고, 또 율법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었음을 가르쳐주었다. 특히 신약 복음서에서 그 내용의 삼분의 일이 예수님의 질병치유에 관한 것일 정도로 질병치유는 그의 주요 사역중의 하나였으며, 치유사역은 예수님이후에도 사도들과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 주된 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1) 손봉호 외, 『하나님을 사랑한 철학자 9인』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9), 30-31, 33.

2) 『내경』의 기록연대는 대략 기원전 4세기경의 것에서부터 기원후 2세기경의 것까지 다양하다. 즉 내경의 대부분은 전국시대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그 완성은 전한과 후한을 거쳐 이루어진 것 같다. 황제내경이라는 명칭은 춘추전국시대의 의서에는 “금방禁方의 서”라는 막연한 명칭만 존재하였는데, 전한초기인 기원전180년경에 황제라는 명칭이 나타나고, 그 후 기원전100년경에 이르러서야 황제내경이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이 책이름이 최초로 나타나있는 문헌은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이다. 이 예문지는 전한 말기인 기원전 1세기 유희劉歆이 편집한 칠략七略이라는 책에 기초하여 후한의 반고班固가 편찬한 것이다.

3) 매 1년 중에 형성되는 5개의 계절과 6개의 기후를 말하며, 뒤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4) 인체내부에 있으며, 5장은 간장·심장·비장·폐장신장을 말하며, 6부는 담·소장·위장·대장·방광·삼초를 말한다.

여기서 관심대상은 질병치유에 관한 양 경전의 원리는 어떻게 다른가하는 점이다. 이들 질병치유이론은 수 천 년 동안 인간의 건강회복에 기여하면서 검증을 받아왔으며, 그에 따라 이들은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애민愛民사상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양 경전이 지니고 있는 질병치유이론의 원리는 동일해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원론적인 답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경』의 중심인 운.기이론을 성경적 질병치유원리와 비교하여 양 이론이 동일한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찾아본다.

II. 『내경』과 성경의 인간론 비교

1.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

『내경』은 인간이 음양陰陽.사시四時인 밤낮과 4계절로 이루어지는 자연의 변화에 의하여 하늘과 땅의 질서와 구조에 맞추어 만들어졌고⁵⁾, 인간의 권위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라고 보았다. 한편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며(창 1:26),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에 대한 모든 지배권을 위임받은 소중한 존재로 보았다(창1:28). 두 경전은 인간을 천지만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인간의 본질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나타냈다.

[표1] 인간의 본질 비교

	『내경』	성경
인간의 창조주	음양.사시(밤낮 과 4계절)	하나님
인간의 권위	세상에서 제일 귀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 지배에 대해 위임 받은 자
인간의 형상	천인天人합일	하나님 형상(image)

첫째, 인간이 누구(무엇)에 의하여 만들어 졌는가에서 양 경전은 자연과 하나님이라는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내 보였다. 이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존재를 표상하는 대표적 내용 중의 하나이다. 이에 따라 『내경』과 성경이 사물과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생긴다. 우선 『내경』은 사물의 본질을 눈에 보이고 여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데에서 찾았다고 여겨진다. 모든 천지만물은 눈에 보이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생성하고 소멸하는 생물들과 함께 스스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형상도 지각할 수 있는 천지자연의 속성 및 구조와 일치한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성경은 비물질적이다. 창조주는

5) 예컨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형태로 되었는데 사람의 머리는 둥글고, 발은 네모진 모습으로 천지와 상응하며,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고, 땅에 구주九州가 있듯이 인체에는 눈, 코, 귀, 입, 등에 아홉 개의 구멍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1년에 365일이 있듯이 사람은 365개의 기혈氣과 골절骨節로 이루어져 있고, 1년 12개월과 하루 12시진時辰이 있듯이 사람의 몸에는 12개의 경맥經脈이 있으며, 계절과 기후의 특징을 표현하는 5운·6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5장·6부가 있고, 24절기가 있듯이 사람에게 24개의 척추가 있고, 4계절이 있듯이 사람은 사지四肢가 있다고 보았다.

눈에 보이지도 느낄 수도 없는 하나님이며, 또 인간은 그의 의도에 따라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 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이 존귀한 존재라는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내경』에서의 그것보다 더 높고 광범위하며 존귀한 존재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이 당신과 비슷하게 그리고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며(창 1:26),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다. 2) 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손수 흙의 먼지로 빚고, 그 코에 직접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만드셨다(창2:7).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야 할 만 큼 인간을 소중히 여기셨다. 3) 인간을 만든 순서가 맨 마지막인 엿셋날이다(창1:31). 이는 인간을 맨 나중에 만들어 앞에 만든 것들을 지배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며 존재하는데 흠결이 없도록 하기 위함으로 여겨진다. 4)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후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창1:26).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의 위에서 그것들을 지배하고 관리하게 하셨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이 같은 존귀성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타락이후 척박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죄악을 범할 수 있는 존재로도 여겨진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하나님이 허용하심에 의한 것으로서 그 이유는 ‘피조물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과 ‘이를 계기로 믿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하였다.⁶⁾

2. 인간(인체)의 질료에 대하여

『내경』은 인간이 기氣로 만들어 졌다고 하였다. 기의 개념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의미로 변화하여 왔다. 『내경』에 의하면 기는 물질을 이루는 최초의 원소⁷⁾로서 지기·수기·연기·수증기 등을 비롯하여, 기후적 요인인 바람·열기·습기·조기·한기 등과 음식을 통하여 얻는 곡기穀氣, 또한 호흡·생명과 관련한 공기 등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내경』은 기가 모이면 고체·액체·기체의 특정 물질로 변화하는 성질 등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질료는 흙·숨 등이었으며, 그 이외 하나님의 말씀과 빛의 행위도 있다(창2:7). 여기에서 흙은 삶의 근거와 죽음이후 되돌아가는 곳으로, 숨은 생명 또는 호흡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표2] 인간의 질료와 창조행위 비교

	『내경』	성경
질료	기	흙·숨(·말씀·빛)
창조행위	기(음양·사계절)의 작용	하나님이 흙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 넣음

이처럼 인간을 만드는데 사용된 물질을 『내경』에서는 기氣라고 보았고, 성경에서는 흙과 숨 등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경』이 말하는 기와 성경에서 말하는 흙, 숨 등은 전혀 관계

6) Anthony A. Hoekema, 『개혁주의 인간론』, 유희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63-64.

7) 『내경』 「육절장상론」 “余聞氣合而有形，因變以正名.”

가 없을까? 『내경』이 언급하는 기는 변화하고 또한 만물은 각기 고유한 기를 지니고 있으므로 성경에서 언급한 흙과 숨 등은 각각 토기土氣(또는 곡기), 공기空氣, 수기水氣를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들 중 공기는 『내경』이 말하는 기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리고 토기와 수기도 『내경』이 말하는 오행五行⁸⁾ 중의 수와 토에 해당한다. 즉 토기와 수기에 해당한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 인간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土)를 의미한다. 한자로 ‘존재存在 (being)’라는 말은 ‘한(一) 사람(人)의 남자(子)와 한 사람의 흙(土)’을 나타내어 “한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한 사람의 남자가 있다”⁹⁾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가하는 주제에 대한 『내경』과 성경의 설명 내용은 상호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특히 『내경』의 ‘기’와 성경의 ‘숨’은 공기라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그리고 공기가 호흡으로 이어지고, 호흡이 생명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근접되어있다고 생각한다.

한편 질료 측면에서 성경의 흙, 호흡 등이 모두 가시적 또는 가지적인 물질이다. 또한 하나님 직접 ‘흙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내용은 이들 물질을 구체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설명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내경』과 성경에서 인간창조에 사용된 질료가 같다고 하기보다는 양 영역 간에 접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3. 육체와 영혼에 대하여

먼저 육체에 대하여, 『내경』은 육(인)체를 자연과 동일한 구조로 보았다. 이 책은 계절의 순환과 그에 따른 기후의 변화를 5계절과 6개의 기후 즉 5운6기로 파악하였다. 그 속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인간의 인체구조도 그와 같은 원리에서 동일한 구조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아 인체에 5장6부의 개념을 부여하였고, 그것들을 인체의 중심으로 보았다. 『내경』은 장부가 인간의 생리·생식작용을 비롯하여 오신五神, 오지五智¹⁰⁾ 등의 작용 즉, 정신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편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알리고 가르치는 경전답게 그에 의해 인간의 육체가 만들어졌으며, 인체의 각 부위 하나하나에 하나님과 생명에 관련됨을 설명하였다. 성경은 인간자체와 인간의 행위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한 성경에 의하면 육체도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다. 생명을 상징함은 육체 전체 또는 심장, 피(창9:4), 살과 뼈 등의 부분이 해당되었다.¹¹⁾ 특히 심장을 생명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표시한 점에서 『내경』의 견해에 근접 하였다.

둘째, 영혼(정신)에 대하여, 『내경』은 영혼이라는 말은 없고 대신 정신과 마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 ‘정신精神’은 ‘정精’과 ‘신神’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정’은 인체가 생리와 생식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 또는 에너지를 의미하였다. 즉 정이란 생식에 필요한 정액과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기를 뜻한다.¹²⁾ 이는 기의 속성에는 물질적인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정밀한 기를 말한다. 다음 ‘신’은 ‘정’을 운동하게 하는 원리와 시스

8) 사물이 지지고 있는 성질을 5가지(5행: 목·화·토·금·수)로 구분한 것으로서 음양이론과 더불어 『내경』의 기초를 이루는 주요이론이다.

9) 임정택, 『성경과 자연치유』 (서울: 백석대학교), 4.

10) 오신은 인체의 오장이 담당하는 혼魂·신神·의意·백魄·정精의 5가지 이성적 작용을 말하며, 오지는 분노·기쁨·걱정및 사색·슬픔·공포 등의 5가지 감정적 작용을 말한다.

11) Kittel & Friedrich,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618-28.

12) 『내경』 「본신」 “故生之來，謂之精，兩精相搏，謂之神。”

템 또는 행위자체 등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정과 신을 통합한 ‘정신’의 의미는 기가 물질이라는 속성과 운동이라는 속성 중에서 각각 가장 정밀하고 뛰어난 것을 말한다. 즉 정신의 기능은, 1), 인간의 생리와 생식기능 등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함과 아울러 그 기능을 조정·통제하는 원리를 의미하였다. 2), 혼·백 등의 기능과 더불어 이성 및 감성작용 모두가 오장에 의해 주관되는 즉 정신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의미하였다.

[표3] 『내경』과 성경의 정신·영혼개념 비교

『내 경』		성 경 *	
구분	의 미	구 분	의 미
신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을 초월한 오묘한 존재 · 인간의 조직 및 기능 등을 표시하는데 사용 않음 	영(루아흐·프뉴마)	- 하나님의 영, 생명을 줌
		영혼(네페시·푸쉬케)	- 인간생명을 표상 (숨, 호흡, 심장, 피, 인격, 이성, 의지 등)
혼·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생식)작용과 함께 어울림 · 혼: 천기天氣(양기: 정신·마음) · 백: 지기地氣(음기: 몸) 	혼	- 네페시와 같음(불멸성 없음)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 오장의 작용 및 원리 · 생리 및 생식의 작용 · 마음(이성 및 감성)작용 	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혼에 포함되거나 같음. - 이성작용 - 우주와 사물의 질서, 목적 등 이성적 원리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작용 - 감성작용 	마음	- 이성·지성·감성작용 등

*성경내용이외에 철학적이미도 일부 포함되어있다.

한편 성경에서 언급한 영혼은 하나님의 영, 인간의 영혼(혼)으로 나뉘어 졌다. 이중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본질을 뜻하며, 그 의미는 시대별로 달랐다. 영혼의 의미는 신약시대 더욱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때 영혼이 지니는 의미는 참된 생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또한 성경에 의하면 혼이라는 말이 사용된다. 그리고 영혼이외에 성경에는 정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이의 의미는 영혼과의 차이에서 분명치 않으나¹³⁾ 고대 그리스철학자들 중에는 『내경』의 정신처럼 사물과 조직의 원리나 기능으로 보았으며, 그 이외에 영혼의 한 속성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었다.

셋째, 영혼(정신)과 육체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내경』은 정신작용이 육체인 오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정신은 인체의 생리기능과 생식기능의 원리이고, 그 기능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정신은 마음작용도 주관하는데 이에는 사물을 판단하는 이성작용과 희로애락 등의 감정 작용이 있으며, 이들도 인체의 각각

13) 아낙사고라스(Anaxagoras: 기원전500-428)에 의하면, “정신은 만물의 구조와 질서를 이루는 이성적 원리이다. 그는 실제의 본성은 정신nous과 질료로 구성된다면서 정신에 대하여 “세계와 만물은 매우 질서 있는 것, 지식과 힘을 가진 하나의 존재를 설명원리로 요구하는 복잡한 구조이며, 그 이성적 원리가 정신이다”라고 보았다.

해당 오장에 의하여 작용된다고 하였다. 『내경』은 희로애락 등의 마음(감정) 작용이 지나치면 오장이 손상을 입어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내경』은 정신(마음)과 육체를 물질과 운동의 관계처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육체 중심의 단일체로 보았다고 여겨진다.

한편 성경의 입장은 신약과 구약의 내용을 통하여 육체와 영혼이 구분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적으로 그 의미가 달라져왔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분 없이 육체와 영혼이 각각 또는 공동으로 전인성(全人性)을 나타낸다고 여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첫째, 육체와 관련하여 『내경』과 성경(주로 구약)은 육체를 생명의 중심으로 보았다는 데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였다고 본다. 즉 인간을 치료대상으로 본 『내경』의 입장과 그리고 구원대상으로 본 성경의 입장에서 각각 육체는 생명을 상징하는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일치하였다. 그리고 육체의 각 부위별로 장.부 등의 표시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심장을 육체를 대표하는 중심 장.부로 보았다는 점에서 양측의 견해가 접근되었다. 『내경』은 의학서이기 때문에 치료대상인 인체의 생성과정과 장기 하나 하나에 대하여 완벽하게 파악 및 정의하고 있어야함이 당연히 전제된다. 이는 인체를 근거로 기록하고, 생명을 담보로 치료하여야 하며, 또한 치료를 통하여 사후 검증과 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내경』에서 언급된 인체의 구조 등은 실제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기술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성경 역시 기술된 내용의 사실성은 분명하다고 본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류구원에 관한 말씀이며, 이를 기초로 성경에는 예수님을 비롯한 사도들이 치유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현재 까지도 치유사역이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내경』의 정신과 성경의 영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각기 고유한 사상과 체계 속에서 정립되고 발달되어온 개념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보다 오늘날에도 이들 내용의 상당부분이 전래되어 각 영역의 사람들 삶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정신과 영혼의 개념에서 어떤 공통적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성경 측의 영혼개념에는 정신적인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근접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정신이 인간 활동의 원리와 통제행위 등의 의미도 포함한다고 봄으로써 양 경전 상에서 이들의 개념이 일부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내경』의 정신개념이 긴 세월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음에 반하여, 성경의 영혼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참된 생명으로서 인간의 본질을 표상하고 불멸하며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변화하여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육체와 영혼(정신)과의 관계에서 『내경』의 입장이 육체중심으로 정리된 반면 성경의 입장은 비교적 '영혼중심'이라는 이론이 길게 유지되었다고 본다.¹⁴⁾ 영혼과 육체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는 고대 그리스시대 이후 많은 학자들이 나름대로의 이론을 내세워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 오늘날까지도 논쟁사항으로 남아 있다. 이는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제대로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과 비슷하게, 그 모습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도 알 수 없는 분야로서 인류의 영원한 숙제중의 하나로 보인

14) 오늘날에는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전체로서 즉 전인적으로 인간을 표상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다.15)

Ⅲ. 『내경』과 성경의 건강론 비교

1. 삶의 원리에 대하여

인간의 건강관련 내용을 논하기 이전에, 인간 삶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원리를 살펴본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인 밤낮의 대립·조화하는 원리와 계절의 순환하는 법칙이 『내경』과 성경에 어떻게 반영되어있는지에 대해서이다.

『내경』은 이를 음양과 오행의 원리로 받아들였다. 음양·오행은 기가 변화할 때 시간과 장소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내경』은 음양·오행이 천지만물이 생겨나고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이며, 그 원리라고 보았다.16) 그 내용들 중에서

첫째, 음양은 밤과 낮이 대립하면서, 조화를 이루어가는 성질을 나타낸다. 음양개념의 성질은 1) 대립적이고 상대적이다. 2) 상호 의존적이고 균형적이다. 3) 계속 운동하며 변화작용을 한다. 4) 운동하며 변화작용을 할 때 음양이 나뉘어져 3음·3양17) 등의 형태를 취한다.

둘째, 오행은 계절이 순환하면서 만물을 변화하게 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오행의 성질은 1) 목·화·토·금·수의 5개로 구분 표시되며, 이들은 각각 고유한 기운을 지니고 작용한다. 따라서 만물은 오행의 각 고유한 기운을 지니게 된다. 즉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행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오행의 각 기는 상호협조하고, 견제 받는 상생상극 관계에 있다.

셋째, 음양과 오행은 상호 상대방의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어 음양을 오행으로, 오행을 음양으로 표시가 가능하다.

넷째, 그와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시간과 공간의 값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부여할 수 있는 ‘십간·십이지’18)제도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성경은 인간 삶의 원리로서 밤낮의 대립과 계절의 순환원리를 반영한 것에 대해 직접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내경』의 음양·오행원리에 상응하는 원리가- 성경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그 것은 인간이 ‘선·악의 갈등 속에 탄생·성장·타락·회개·용서받음이 연속되는 구조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여겨진다. 그 근거로는 1), 선과 악의 갈등은 아담이후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선함으로 대하여 주시는데 반하여 인간은 악한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2), 탄생·성장·타락·회개·용서받음의 구도는 성경의 구조인 창조·타락·구속·완성에서19) 구한 것이다. 다만,

15) 전한호, 「육체와 영혼의 관계」, 291.

16) 『내경』 「사시조신대론」 “故陰陽四時者, 萬物之終始也, 死生之本也.”

17) 음양이 6개로(궐음, 소음, 태음, 소양, 양명, 태양) 분류된 것을 말한다.

18) 십간은 10個개를 의미한다. 간干은 개와 같다. 즉 10간은 계산단위이었다. 십간은 은나라와 주나라시대에 날짜를 기록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천간天干으로도 불려진다. 고대에는 날짜를 월과 더불어 순旬단위로도 계산하여 갑甲일로부터 시작해서 계癸일에 이르기까지 10개(일)를 일순一旬이라 하였다. 십간은 10개의 문자(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자(간)는 氣에 대한 일정한 값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시간과 공간 등에 기의 값을 부여하여 표시한다. 또한 십이지十二支는 동물을 상징하는 12개의 문자(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로 되어 있다. 그 동물들은 쥐를 비롯하여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그리고 돼지이다. 이들 십이지 역시 기氣에 대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시간과 계절 그리고 장소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구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의 각 인간 삶이 탄생·타락·회개·용서받음으로 이어지는 작은 구조로 보았다.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인간의 삶의 원리’를 논하는 이유는 인간의 질병과 치유에 대한 해법을 설명하는데 도움받기 위해서이다. 밤낮의 대립과 계절의 순환 및 상생상극하는 법칙에 대하여, 『내경』은 음양·오행의 원리로 풀었으며, (필자에 의하여) 성경은 ‘선·악의 갈등과 인간의 탄생·타락·회개, 용서받음의 연속’을 강조하였다. 이들을 인간의 질병과 치유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그 기준을 두고 평가하면, 우선 『내경』에 의하면 음양·오행은 천지 만물을 생성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또한 그 만물이 음양과 오행의 성질을 각각 지니고 있으며, 이들로써 만물에 대한 ‘기의 값’을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음양과 오행 간에도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 상대방의 값으로 각자를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관련한 음양과 오행의 값을 십간·십이지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는 동양철학의 진수이다. 이를 계기로 계절 등의 시간과 방향·장소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의 변화가 인간의 장·부에 주는 영향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그에 따라 사람들이 질병의 원인과 치유방법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다만 그 것이 과연 얼마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실제 인간의 질병을 치료한 결과에 의하여 이루어져왔고 또 이어질 것이다.

한편 성경의 이해에 대하여, 필자는 “선악의 갈등과 인간의 탄생·타락·회개·용서받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 죄악의 갈등을 뜻하며, 인간의 거듭되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총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다”라고 본 것이며, 이는 인간의 질병발생 및 치유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뒤에서 한다.

2. 건강조건에 대하여

인간이 건강하게 살기위해서 무엇과 ‘주된 관계(main relationship)’ 속에 살아야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내경』에 의하면 인간은 ‘자연 즉 5운6기와의 주된 관계’ 속에서,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주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되어있다.

『내경』은 그 근거로 운·기와 인체가 일치됨을 설명하였다. 첫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운·기는 5개의 계절과 6개의 기후로 이루어졌으며, 인체도 5개의 장과 6개의 부로 되어있다.²⁰⁾ 둘째, 기능측면에서 운·기의 6개 기후는 한기, 열기, 조기, 습기, 서기, 풍기 등으로 작용을 하는데 장·부 역시 인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한기와 열기, 조기와 습기 등을 생산, 사용하는 작용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기의 특성측면에서 운·기는 만물이 싹트고 새끼를 낳는 봄, 잎이 피고 성장하는 여름, 꽃피고 열매 맺는 한여름, 결실을 이루는 가을, 저장하는 겨울로 이루어져 폭발, 발산, 전환, 수렴, 저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인체의 오장도 그와 같은 기능을 나누어 담당한다고 보았다.²¹⁾

19) Gordon D. Fee & Douglas Stuart,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김성남 역 (서울 성서유니온교회, 2009), 15-23.

20) 『내경』 「천원기대론」 “人有五臟，化五氣”

21) 『내경』 「음양응상대론」 “天有四時五行，以生養化收藏，以生寒暑燥濕風，人有五臟化五氣，以生喜怒哀憂恐.”

[표4] 자연(운.기)과 인체의 상응내용

오행	인체 (5장)	자 연			십간·십이지	
		방위(공간)	계절(5운)	기후(6기)	십간	십이지
목	간장	동	봄	풍기	갑, 을	인, 묘
화	심장	남	여름	열기·서기	병, 정	사, 오
토	비장	중앙	한여름	습기	무, 기	축, 진, 미, 술
금	폐장	서	가을	조기	경, 신	신, 유
수	신장	북	겨울	한기	임, 계	해, 자

한편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이는 인간의 건강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건강은 구약성경에서는 그 특징으로 살롬(안녕), 정의, 순종, 힘, 다산, 장수를 들었다.²²⁾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생명, 복福, 그리고 그와의 관계 안에서 성결함과 성숙함을 의미한다.²³⁾

이와 관련하여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된 것이라는 근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본다. 첫째, 성경은 건강함의 정의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결합되어 있는 인간 전체로서의 온전함을 의미한다.²⁴⁾ 둘째, 하나님의 질병에 대한 구약시대 율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그를 숭배하고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에 대한 것이다. 전자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저주와 징벌적 성격의 질병을 얻게 된다(신7:15). 후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을 초기부터 치유시점까지 사제를 통하여 통제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레13:1-46). 셋째, 하나님은 질병과 관련하여서도 전지 전능하시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어 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인간을 하나님의 속성과 모습으로 직접 손으로 빚으시어 만드신 분이시다. 그분은 인간에게 양식을 주시고, 번식하고 번성토록 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선함을 원하셨다.

22) Wilkinson, 『성서와 치유』, 김태수 역 (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1), 35-44.

23) Wilkinson, 『성서와 치유』, 35-44.

24) Wilkinson, 『성서와 치유』, 50.

[표5] 인간 삶의 '주된 관계' 비교

구분	『내 경』	성 경
주된 관계	자연(운·기)	하나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기와 인체의 일치 ○ 구조 : 오운과 오장, 육기와 육부. ○ 기능 : 한기(신장), 열기(심장), 조기(폐장), 습기(비장) 등 관련 작용. ○ 특성 : 생생(봄·간), 장長(여름·심장), 화化(한여름·비장), 수收(가을·폐장), 장藏(겨울·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온전함을 의미 - 하나님은 인간질병에 대한 율법제정 - 하나님은 질병을 다스리심. ○ 하나님은 인간 등을 만드신 창조주 ○ 인간에게 번식·번성의 은총주심. ○ 선한 어린양(인간)을 돌보는 목자. ○ 인간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질병을 치유해주심

이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한다. 하나는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된 관계'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주된 관계가 앞에서의 주제인 '삶의 원리'를 과연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이다.

첫째, 『내경』과 성경에서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된 관계'는 각각 '자연(운·기)'과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차이가 드러났다. 이 차이는 이들 두 경전의 목적과 성격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내경』은 의학서이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주변 생활환경에서 찾아야 하였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기위한 말씀으로 이루어진 경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양 경전 간의 주장에 대립과 모순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간과 자연도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창1:28) 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땅과 하늘을 포함하여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 성경은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대신 성경은 "감추어진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의 것이지만 드러난 것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것이니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신29:28), 그리고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일을 밝히는 것은 임금의 영광이다"(잠25:2)라고 알려주고 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온갖 지혜와 지식을 직접 알려 주지 않으시고 인간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를 찾도록 하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자연환경과 관련하여서도 자연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진리와 질서를 찾아야만 인간은 하나님 명령에 맞게 살게 되고 또 자연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내경』은 자연에는 5운·6기가 있고 인간에게는 5장·6부가 있어 구조 측면에서 일치하며, 그리고 이들이 한기와 열기, 조기와 습기를 일으키고 조절하는 작용기능적인 측면과 생, 장, 화, 수, 장하는 특성적 측면에서도 상호 대응한다고 하였다. 이는 『내경』이 자연과 인간 모두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증명한 것이고, 또 하나님 명령대로 자연에 관

한 일을 밝히고, 자연을 지배하며 다스리려는 순종의 증표라고 여겨진다.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 특히 힘없고 불쌍한 이웃과 백성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강조하고 계시며, 예수님의 공생애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을 치유하여 주는 것이었다. 『내경』이 저술된 목적 역시 병들고 나약한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질병치유를 용이하고 올바르게 하도록 하여 그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 보다 더욱 성경에 일치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하는 점에서 『내경』과 성경은 일치하였다고 본다.

둘째, 평가대상은 이러한 ‘주된 관계’에 앞 절에서 논한 ‘삶의 원리’가 과연 반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우선 『내경』은 그 원리를 ‘음양·오행’이라고 했다. 즉, 음양·오행원리는 자연과 인체에 모두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자연에서 5운은 오행을, 6기는 음양의 분화된 형태로 음양을 완전하게 반영하였으며, 또 자연에 상응하는 인체도 5장6부의 조직으로 음양오행의 원리를 모두 반영하였다.

한편 성경과 관련하여, 필자는 그 원리가 ‘선악의 갈등’과 ‘탄생·타락·회개·용서받음’의 이어짐으로 되어있다고 했다. 본 절에서 풀이한 ‘주된 관계’로서 하나님과의 내용은 건강함의 개념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이었다. 이중 건강함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결합되어 있는 인간 전체로서의 온전함을 의미하였다. 여기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들어있는데 이는 인간에게 ‘선함’을 요구한 것으로서 그 이면에는 인간이 항상 ‘악행’에 노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악의 갈등’은 성경속의 건강개념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본다. 또한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도 그 내용이 하나님명령에 순응하면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선악의 갈등’은 당연히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다만 ‘탄생·타락·회개·용서받음’의 이어짐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모든 단계의 이어짐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질병에 걸린다는 것은 죄를 지은 대가이며(신7:15), 즉 타락한 결과이다. 따라서 ‘탄생·타락·회개·용서받음’의 이어짐과 관련하여, 여기서 ‘탄생·타락’의 이어짐까지는 총론적으로 반영되었음을 설명했다고 본다. 나머지 ‘회개·용서받음’의 이어짐의 반영에 대하여는 다음 질병치유에서 설명한다.

3. 질병발생원인 및 치유방법에 대하여

이는 인간의 질병발생원인과 치유방법에 대한 것으로서, 앞의 ‘건강조건’에서 총론적 내용에 이어 각론적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먼저 이에 대한 『내경』의 설명은 객운·객기이론²⁵⁾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기온과 기후는 인간의 삶에서 떨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인간의 질병발생과 치유에도 영향을

25) 이중 객운은 오운이 상대적으로 매년 변화하는 것으로서 첫째, 십간에 의한 오운의 값이 정오행正五行에서 화기오행化氣五行으로 바뀌었으며(예: 토土 = 갑·을년->갑·기년), 둘째, 이에 따라 초운初運이 정해지고 매년 바뀌게 되어 그 순환주기가 5년이 되며, 셋째, 그 해의 십간이 음·양여부에 따라 태과·불급 년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객기는 역시 육기가 상대적으로 매년 변화하는 것으로서 첫째, 십이지에 의한 육기의 값이 정오행에서 ‘십이지화기(객기오행)’으로 바뀌었으며, 둘째, 육기 순서에서 ‘소양상화’가 ‘태음습토’의 뒤에 오는 것으로 바뀌고, 셋째, 객기에는 사천과 재천이 있으며, 이중 사천은 6기중 세 번째 3기로서 상반기 기후를 주도하고, 재천은 6기중에서 맨 마지막 6기로서 하반기 기후를 주도한다.

미치는데 그 기온과 기후가 매년 가변적인 객운·객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객운과 객기는 본래대로 항상 고유한 값을 유지하고 있는 주운 및 주기와 세력 다툼을 하게 되고, 5년과 6년의 순환 주기를 갖고 있는 객운과 객기가 결합하여 순환하게 되며 그 기간은 30년이 된다. 이처럼 인간은 5년, 6년, 30년, 60년²⁶⁾을 순환기간으로 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객운과 객기의 작용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같은 운·기의 변화가 인간에게 질병으로 이어지고 그 질병치유방법도 운·기에서 찾게 된다.

한편 성경에 나오는 질병발생 및 치유와 관련하여, 먼저 질병(disease)은 dis와 ease의 결합 즉 ‘평안하지 않은 상태’로서 신체적, 영적, 정신적 및 사회적 질서가 정상상태로 부터 이탈된 상태, 즉 자아와 인간과 환경과 하나님과의 부조화(disharmony)를 이룬 상태”라고 정의된다.

질병발생 원인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한다. 우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재앙 또는 전염병적 성격을 띤다(출9:10). 즉 질병은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피부병, 곰팡이 병처럼 자연적 또는 위생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이 있다(레13:2-6). 반면 신약성경에서 질병발생은 개별적이며, 그 원인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치유를 기대하기 어려운 선천성, 난치성의 병들이었다.

다음 질병치유에 대하여, 그 치유는 단순히 병들기 이전 상태로의 회복만이 아니라 전인적 그리고 그가 처한 환경에서 전체적인 회복과 치유를 통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 가능성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을 의미하였다.²⁷⁾ 먼저, 구약성경에서 치유는 모두가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 직접 치유하셨다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예언자와 의사 등 대행자를 통하여 치유가 이루어졌다(2열5:14). 그리고 자연치유 등의 방법도 있었으며, 이는 대부분 질병이 인간의 생활 습관 및 자연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이다.

한편, 신약시대에서는 치유를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 예수님에 의한 치유와 초대교회에서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 이후 현재까지로 나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의한 치유는 개별적이며, 이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전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게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모습이 많다. 한편 예수님의 치유과정에서 사용하신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말씀을 비롯하여 물, 흙, 그리고 만짐(빛음) 등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였던 방법과 상호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이는 인간의 창조와 질병의 치유는 근원적으로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예수님 치유의 특성은 그분이 병자들을 대하실 때마다 가여워 하시는 마음과 기도하심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며, 반면 병자들에게는 회개와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였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치유는 12사도를 비롯한 제자들에 의해서도 같은 방법과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그 후 교부시대, 중세시대, 종교개혁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 까지 비록 기복이 있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아래 변함없이 이루어져오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내경』은 운·기가 다양하게 변화작용하며 인간에게 발생하는 질병의 발생원인과 치유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으며, 성경은 하나님말씀에 있는 건강함에 대한 정의와 질병의 발생원인과 치유방법 등을 설명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

26) 60년 주기는 십간·십이지(60갑자)에 따른 기의 순환주기에서 나온 것이다.

27) 박형렬, 『통전적 치유목회학』 (서울: 치유, 1994), 119.

『내경』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질병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삶에서 맺고 있는 ‘주된 관계’ 측면에서만 파악된 것이다. 『내경』이 강조하는 외부요인과 성경이 강조하는 내부요인을 비교함으로써 각각 강조하는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양 경전에서도 인간질병의 발생원인과 치유방법에는 내부 요인과 외부요인이 있으며, 또한 치유과정에서의 방법도 각각 구분되었다. 따라서 이를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각각 비교함으로써 동질성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절 ‘동질성 확인’에서 설명한다.

한편 삶의 원리와 관련하여, 필자는 성경에서 그것을 ‘선악의 갈등’과 ‘탄생·타락·회개·용서받음’이라고 보았으며, 그중 ‘탄생·타락’ 부분 등에 대하여는 앞에서 총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인간이 타락하였을 때 어떤 질병이 어떻게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치유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면 타락하여 죄를 짓고 병을 얻게 되는데 이때 성경은 병자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용서를 받아 치유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이로써 밤과 낮의 대립과 계절이 순환하는 원리가 『내경』에서는 음양·오행이론으로, 성경은 ‘선악의 갈등’과 ‘탄생·타락·회개·용서받음’이 연속되는 구조로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IV. 『내경』과 성경의 질병치유이론 동질성확인

1. 질병발생원인 및 치유방법의 비교

앞에서 『내경』과 성경은 질병관련 내용을 주로 ‘주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을 강조하여 설명하였으나 그 이외에도 질병발생원인과 치유방법에는 각각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있음을 말하였다. 여기서 이들 내용을 외부적 그리고 내부적 요인으로 종합하여 비교한다.

가, 질병발생요인에서

질병발생의 외부 요인으로, 앞장에서 『내경』은 5운6기로 표현되는 기온과 기후의 변화라고 하였다.

“모든 병의 발생은 풍·한·서·습·조·화 등 6기의 변화에 기인한다.” “온갖 질병이 처음 발생할 때에는 풍·우와 한·열과 청량함과 습기 그리고 기쁨과 성냄에서 발생한다. 기쁨과 성냄을 절제하지 못하면 오장을 상하게 되고, 바람과 비는 인체의 위에 부분을 상하게 하고, 서늘하고 습한 것은 인체의 아랫부분을 손상시킨다.”²⁸⁾

성경(구약)에서도 외부적 요인으로 피부병(레13:2-6), 곰팡이 병(레13:49-50)처럼 자연적, 계절적 또는 위생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살갓에 부스럼이나 습진이나 얼룩이 생겨, 그 살갓에 악성 피부병이 나타나면, 그를 아론 사제나 그의 아들 사제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사제는 살갓에 생긴 병을 살펴보는데, 병든 자리의 털이 희어지고, 그 자리가 다른 살갓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피부병이다. 사제는 그것을 살펴본 뒤, 그를 부정함 이로

28) 『내경』 「백병시생론」 “夫百病之生也，皆生於風寒暑濕燥火 夫百病之生也，皆生於風雨寒暑清濕喜怒 喜怒不節則上藏，風雨則傷上，清濕則傷下。”

선언한다.”(레13:2-3)

내부 요인으로 , 『내경』은 감정 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사람의 희로애락은 신체 내부의 오장과 육부를 상하게 하고, 그 반대로 장.부에 생긴 질병은 고통과 슬픔 등으로 감정에 손상을 주는 원인이었다.

“분노는 간장을 상하게 하고, 기뻐함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생각함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걱정함은 폐장을 상하게 하고, 두려워함은 신장을 상하게 한다”²⁹⁾

성경은 우선 구약성경에서는 죄, 즉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부터 나오는 재앙 또는 전염병적 성격을 가졌다고 보았다.

“그들은 가마에 있는 그을음을 쥐고 파라오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으로 뿌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궤양을 일으키는 종기가 되었다”(출9:10).

다음 신약성경에서는 나타난 질병의 종류가 다양한데 그 원인은 역시 죄,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병자들의 회개와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신 점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신약에서도 모든 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요9:1).

[표6] 『내경』과 성경의 질병발생 주요원인 비교

	『내 경』		성 경	
	외부	내부	내부	외부
질병발생주요원인	자연(운·기)	감정적요인	죄	자연적요인

나, 질병치유방법에 대하여,

『내경』에 의하면 우선 외부 원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 그 치유의 방법은 우선 기온과 기후 등의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손상된 장.부의 기능회복에 있다. 그 리고 치유 수단으로 사용되는 음식, 약, 침, 뜸 등은 음양오행의 원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약(음식 포함)의 경우 그 재료가 식물과 동물 등에서 얻어진 것들인데 이들을 약재로 사용하는 기준은 그 약재가 지니고 있는 성분에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침과 뜸의 경우 침은 소재가 금속이어서 차가운 성질이고, 뜸은 불로 열을 내는 방법이므로 뜨거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의 내용과 해당 장.부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침 또는 뜸을 선택한다.

다음 내부 원인, 즉 감정의 소모에 의하여 몸과 마음에 질병을 일으킨 경우에는 그 치유 대상과 목적을 장.부의 안정에 중점을 둔다. 그 질병의 원인이 된 감정의 해소를 위하여 이에 상극하는 원리를 사용하여 치유할 수 있다. 예컨대 끓어오르는 분노는 간장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분노를 가라앉게 할 수 있는 슬픔과 가여움 등으로 진정시켜 치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방법은 약, 침, 뜸 이외에 마음의 안정과 평화에 의하는

29) 『내경』 「오운행대론」 “在志爲怒 怒傷肝, 在志爲喜 喜傷心, 在志爲思 思傷脾, 在志爲憂 憂傷肺, 在志爲恐 恐傷腎.”

것이다.

[표7] 감정에 의한 질병발생과 치유관계

	목	화	토	금	수
감정발생(a)	분노怒	희쁨·경驚	사思·우憂	비悲	공恐
질병(5장6부)	간장·담	심장·소장	비장·위	폐장·대장	신장·방광
치유(a와 상극)	비悲	공恐	노怒	희쁨	사思

한편 성경이 언급한 질병치유방법은 우선 외부 요인인 자연적으로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율법에 의한 자연치유방법 등에 의존하였다.

다음으로 내부 요인인 죄 때문에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는 병자의 죄에 대한 회개와 구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였으며,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하심에 의하였다.³⁰⁾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치유는 고통을 받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³¹⁾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타인의 상처와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연민과 사랑 가득한 마음이다.³²⁾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가엾이 여기시는 자비롭고 온유한 마음 때문이라 하였다.³³⁾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마14:14).

“나병환자가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막1:41).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속으로도,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 주십시오”(막9:22).

[표8] 『내경』과 성경의 질병치유 주요방법

질병치유주요방법	『내 경』		성 경	
	외부	내부	내부	외부
	자연에 순응	감정요인해소	회개와 용서	자연치유

2. 질병발생원인 및 치유방법의 동질성확인

30) 이는 성경에 설명된 내용이며, 모든 경우에 환자의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어져 치유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31) 박준양, 『그리스도론』 (서울: 생활성서사, 2011), 94.

32) 박준양, 『그리스도론』, 118.

33) 박준양, 『그리스도론』, 118.

가. 질병발생원인 측면

첫째, 질병발생에서 외부 원인은 『내경』의 경우 계절에 따른 기온과 바람·추위·더위·습기·건조·열기 등 기후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즉 자연이라고 일컬어지는 운·기의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성경의 경우에도 기온과 기후변화에서 오는 곰팡이 병, 피부병 등 자연적 계절적인 것들이었다. 따라서 이들 『내경』과 성경의 내용은 질병발생 원인이 자연적, 계절적 등이라는 점에서 거의 일치하였다고 본다.

둘째, 내부 원인은 『내경』의 경우 병자의 감정소모가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사람이 지나치게 기뻐하는 것을 비롯하여 분노, 증오, 슬픔,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공포 그리고 사색 등은 건강을 즉 해당되는 장·부를 해치게 한다. 이중 증오憎惡는 그 자체가 악행이 된다고 보고 있어 이는 성경의 시각과 다름이 없다.

한편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저지른 죄악이 질병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었다. 죄악이라 함은 행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 사람이 분노와 증오 등의 나쁜 감정을 드러낸다던지(이 경우에도 죄가 된다. 마 5:22) 또는 직접 죄악의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은 행위전후에 양심의 가책 등 심한 감정소모가 있게 마련이다. 예컨대 어느 사람이 살인죄를 지었을 경우 그는 사전事前에 분노와 원한 등으로 인한 감정소모와 사후事後에 불안과 공포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 사람이 살인죄를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소모는 『내경』에서 말하는 감정소모와 다를 것이 없다. 즉 살인행위는 ‘감정소모’와 ‘죄의 성립’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 『내경』과 성경이 각각 주장한 질병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에 해당된다고 본다.

[표9] 내부·외부 요인에 의한 질병발생(예)

	『내 경』	성 경
내부	분노·증오 -> 5장6부(간장계열)상함 ->질병	죄(분노· 증오 등) -> 양심가책 -> 질병
외부	기온과 기후 등의 변화에서 오는 질병	기온과 기후변화에서 오는 질병 (곰팡이·각종 피부병 등)

나. 치유방법 측면

첫째, 외부 원인으로 인한 질병의 치유에 관하여, 『내경』은 계절에 따른 기온과 바람·추위·더위·습기·건조·열기 등 기후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성경의 경우에도 기온과 기후에서 오는 곰팡이 병, 피부병 등에 관한 치유는 율법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르면 하였다.

[표10] 외부요인에 의한 질병 치유(예)

『내 경』	성 경
운·기(자연)이론으로 예방· 치유	율법·자연치유방법 등에 의존

둘째, 내부 원인으로 인한 질병의 치유방법에 관하여, 『내경』은 일차적으로 해당 장.부를 약과 침 등으로 치유하며, 이어서 오행의 상생 및 상극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원인이 되는 해당 감정을 중화내지 억제하는 방법을 요구하였다. 예컨대 어느 사람이 분노에 치를 떨다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치유는 해당 장부를 대상으로 약 등을 복용케 하는 방법 이외에 분노를 중화시키거나 억제할 수 있는 방법 즉 슬픔 및 걱정 등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슬픔과 자비로운 마음이 분노를 진정시켜 평화로운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한편 성경의 경우 죄로 인하여 발생한 병의 치유는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한다. 성경에 의하면, 이를 위하여 병자는 회개를 하고 믿음을 지녀야하며(마4:17, 8:13, 9:22, 29), 이에 대해 하나님이 가엽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심과 더불어 병을 고쳐 주셨다. 이러한 질병치유와 관련하여 『내경』과 성경이 말하는 내용에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람이 죄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는 대부분 반성의 눈물과 슬픔을 수반하게 된다. 이 슬픔은 성경이 죄 사함을 위하여 요구하는 회개측면에서, 그리고 『내경』이 말하는 분노를 중화시키기 위하여 각각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여긴다.

[표11] 내부 요인에 의한 질병의 치유(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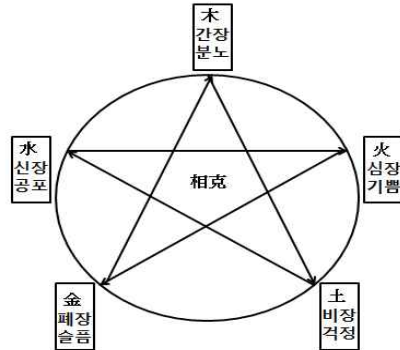
『내 경』	성 경
슬픔·자비심 -> 분노·증오심 감소	회개 -> 슬픔·자비심 -> 죄(분노·증오)감소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에서 ‘죄의 회개와 질병치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와 관련하여 『내경』은 “분노는 간장을 상하게 하고 슬픔은 성념을 이기며, 기쁨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 두려움은 기쁨을 이기며, 걱정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성념은 걱정을 이기며, 근심은 폐장을 상하게 하고 기쁨은 근심을 이기며,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하며 걱정은 두려움을 이긴다”³⁴⁾라고 하였다. 이 중에서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며 슬픔은 성념을 이기며’를 풀이하면, 사람이 일으키는 분노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며(마 5:22),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범하는 모든 다른 죄악의 출발점이 된다. 그리고 『내경』은 분노가 인체의 간장을 상하게 한다고 보았으므로 이점에서 분노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대한 예방 또는 치유 방법으로, 『내경』은 슬픔을 안겨주면 분노가 없어진다고 하였다. 슬픔이라함은 마음이 애달픈 것으로서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빠져린 반성이 있을 때의 마음(감정)이 바로 슬픔과 애달픔이라고 여겨진다. 즉 『내경』은 슬픔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을 때 분노가 삭아들고 마음이 평화로워진다고 보았다.

성경은 이에 대해 “마음의 기쁨은 곧 사람의 생명이며 즐거움은 곧 인간의 장수이다. 질투와 분노는 수명을 줄이고 걱정은 노년을 앞 당긴다”(집30:22,24)라고 감정의 소모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됨을 가르쳐주었으며, 또한 치유에서도 “그들을 낮게 해주는 것은 약초나 연고가 아닙니다. 주님,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당신의 말씀입니다”(지16:12)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선한 사람이 되어야 병이 치유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34) 『내경』 「오운행대론」, “其志爲怒, 怒傷肝, 悲勝怒.其志爲喜, 喜傷心, 恐勝喜, 其志爲思, 思傷悲, 怒勝思, 其志爲憂, 憂傷肺, 喜勝憂其, 志爲恐, 恐傷腎, 思勝恐..”

[그림] 오장과 감정의 관계



이상 『내경』과 성경의 내용은 질병치유방법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 그 내용은 질병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사람들의 의식주가 우선 기온과 기후변화에 맞아야하고, 그리고 치료약 등은 동물과 식물 그리고 광물 등에서 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질병치유방법에서도 『내경』과 성경이 말한 내부적 및 외부적 요인 모두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3. 『내경』과 성경의 질병관련 공유내용

이상과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내경』과 성경이 각각 지니고 있는 질병발생원인 및 치유방법에 대한 이론을 상호 공유할 수 있다고 본다.

가. 외부 원인에 의한 질병은 5운6기(5장6부)의 작용과 관련된다.

외부 원인에 의한 질병 즉 『내경』의 ‘기온 및 기후’와 성경의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치유방법인 ‘자연에 순응’과 ‘자연치유’는 그 원리적 측면에서 동일하다. 그 결과 이들 질병의 치유는 『내경』의 운·기이론 등에 의한 방법과 성경의 율법 등에 의한 자연치유방법이 공유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치유효과도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 경우에 그 치유기능을 인체의 어느 부분에서 담당하는가에 대하여 성경은 언급이 없고 『내경』에만 있다. 그것은 자연의 5운6기에 상응하는 인체의 5장6부이다. 사람의 몸을 대표하는 5장6부는 자연의 운·기에 상응하며, 또한 그 장·부는 인체의 표면과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치유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계절성 피부병 등 외부적 원인에 의한 질병치유도 운·기변화에 맞춘 장·부의 기능조절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답이 나오게 된다.

나. 내부 원인에 의한 질병은 5장6부의 기능과 관련된다.

내부 원인에 의한 질병 즉 『내경』의 ‘감정적 원인’과 성경의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질병치유방법인 ‘감정요인해소’와 ‘회개와 용서’는 그 원리적 측면에서 동일하였다. 그리하여 양 경전이 추구하는 이상인 ‘마음의 평화와 선한 마음’의 달성을 통하여 질병치유가 이루어진다. 이중 ‘용서’는 하나님의 은총이므로 논외로 하고 나머지 감정요인 해소와 회개는 병자가 하여야한다.

이러한 치유기능을 사람 인체의 어느 부분에서 담당하는가에 대하여도 성경은 언급이 없고 『내경』에만 있다. 그것은 역시 장·부이며, 이곳에서 모든 마음(이성, 지성, 감성)작용을 담당한다. 따라서 내부적 원인에 의한 질병의 치유는 장·부의 기능조절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답이 나오게 된다.

다. 질병은 그 치유과정에서 5운6기의 영향을 받으며, 그에 상응하는 5장6부의 기능과 관련된다.

모든 질병이 내부 및 외부 원인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단 발생하고 나면, 이후 치유과정에서 그 질병의 진행은 기온과 기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였다. 비록 내부 요인인 감정소모 등에 의하여 병이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그 병은 발생이후 기온과 기후의 변화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병자는 기온과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이용하여야한다. 이는 모든 병이 자연 즉 운·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모든 질병의 치유는 5운6기에 상응하는 5장6부의 기능과 관련된다는 내용이다.

[표12] 질병치유방법 공유내용

	『내경』		성경		해당이론*
	외부	내부	내부	외부	
질병발생 주요원인	기온과 기후	감정	죄	자연	음양·오행
치유방법	자연에 순응	감정요인해소	회개와 용서	자연치유 등	
치유방법 공유		감정요인 해소·회개와 용서			5장6부
치유방법 공유	자연에 순응			자연치유	5운6기
치유결과	5장6부를 통한 전인적 치유				

* 『내경』의 이론이다.

V. 마치는 말

본 연구를 통하여 『내경』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삶의 주된 관계’에서 비롯된 질병치유 방법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였다. 그 결과 『내경』은 가시적이고 인식 가능한 자연변화의 질서에서 인간 삶의 근원을 찾아 질병발생 원인을 규명해내고, 그에 기초하여 질병을 치유하였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하여 인간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아 질병발생원인과 치유방법도 모두 그에게서 찾았다. 이를 요약 정리하여 본다.

먼저 ‘Ⅱ’에서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가 인간의 질병에 대하여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의 본질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하기 때문이었다. 즉 『내경』과 성경은 천지만물 중에서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위상으로, 그리고 무엇으로 만들어 졌다고 보는가에 대한 입장을 보기 위함이었다.

첫째, 인간은 어떠한 권위와 형상으로 창조되었는가에 대하여, 먼저 인간의 권위에서 양경전은 사람을 천하에서 제일 존귀한 존재로 보았다. 다음 인간은 어떠한 형상에 맞추어 만들어 졌는가에서 『내경』은 천·인합일사상에 근거하여 자연의 모습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모습과 속성으로 만들어 졌다고 보았다.

둘째,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가에 대하여, 『내경』은 사람이 기氣로써 만들어 졌다고 보았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흙, 숨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 졌다고 했다.

셋째, 인간의 구조와 관련하여, 인간의 생명을 상징하는 육체와 영혼의 구분과 의미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중에서 1) 육체는 어떤 구조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대하여, 『내경』은 육체가 생명을 상징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장·부가 중심이었으며, 성경은 육체와 영혼이 각각 또는 통합하여 생명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었다. 2) 영혼(정신)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내경』은 영혼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그 대신 정신을 오장의 작용내지 그 원리로 보았다. 정신작용은 다시 생식작용과 마음작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생식작용에는 혼과 백이 함께 작용하였으며, 그리고 마음작용에는 이성작용과 감성작용 등이 있었다. 한편 성경에서는 영혼이 생명의 중심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석되어왔다. 3) 육체와 영혼은 어떠한 관계인가에 대하여 『내경』은 육체중심의 단일 구조로, 성경은 육체와 영혼이 각각 생명의 본질로 기술되고, 해석되기도 하였으나 현대에서는 이들이 합쳐진 전인적 의미로서의 인간이 강조되었다.

‘Ⅲ’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건강한가를 연구하였다. 이는 인간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목표가 건강이라고 여겨지는데 이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야하는 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첫째, 인간은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져 살아가는가를 다루었다. 즉 밤낮이 대립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면서 계절의 변화로 이어지고 그 계절들은 서로 상생하고 상극하는 가운데 순환하는 원리가 인간 삶에 어떻게 반영되어있다고 보는가에 대하여, 『내경』은 음양과 오행의 원리에 의하여 살아간다고 보았으며, 성경에서 필자는 사람이 선과 악의 갈등 속에 탄생·타락·회개·용서받음이 연속되는 구조를 이루며 살아간다고 보았다.

둘째, 인간 건강의 조건을 다루었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위하여 인간은 무엇과 주된 관계(main relationship) 속에 사는가에 대하여, 『내경』은 자연 즉 기온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을 각각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고 보았다.

셋째, 인간의 질병발생원인과 치유방법을 다루었다. 이에 대하여 『내경』은 질병발생의 외부적원인은 운·기이론에 의해 설명되는 기온과 기후의 변화에 의한 것이며, 내부적 요인은 분노 등 지나친 감정소모가 오장육부를 상하게 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의 치유와 관련하여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은 자연변화에 순응하고,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은 오행의 상생하고 상극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해당 감정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다른 감정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한편 성경에 의하면 병자의 외부적 요인은 곰팡이, 피부병 등 계절성 성질을 지닌 자연발생적인 것이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병자가 지은 죄가 질병의 요인이었다. 이들 질병의 치유방법역시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는 율법 등에 정해놓은 방법에 의하고,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경우에는 병자의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받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Ⅳ’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근거로 『내경』과 성경에 의한 질병발생원인과 치유방법에 대한 내용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양 경전이 본 각각의 질병발생원인과 치유방법의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들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그 내용들이 근원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외부 원인에 의한 질병은 5운6기(5장6부)의 작용과 관련되고, 내부 원인에 의한 질병은 5장6부의 기능과 관련되며, 질병이 일단 발병하면 그 질병

은 치유과정에서 5운6기의 영향을 받으며, 그에 상응하는 5장6부의 기능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론이 나오기 까지 이들 양 경전의 세계관은 질병치유의 입장과 자세에서 시종일관되었으며, 그 치유성과도 수 천 년을 유지하여 올 정도로 훌륭하다고 본다. 『내경』과 성경이 펼친 질병치유에 대한 방법은 단지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각각 환자의 질병치유를 통하여 훌륭하게 입증하였다. 그리고 이들 경전에 의한 치유방법은 물론 질병발생의 원인에서도 양 경전은 근본적, 원리적인 입장에서 일치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오늘날 이들 양 경전에 의한 치유는 상대적으로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필자는 의학자가 아니므로 『내경』과 성경의 질병치유와 관련한 가치의 재조명에 대하여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이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사실 및 경험적인 필요성 차원에서이다. 오늘 날 과학문명의 눈부신 발달과 더불어 의술분야도 크게 발전하였으나 모든 질병이 이에 의하여 치유되지는 못한다.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지극히 흔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원인파악도 못하거나 또는 그 원인을 찾았다 해도 뾰족한 치유방법이 없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는 중에 일부는 한의, 기도, 민간요법 등에 의해 치유된 사례가 있다. 그 근거와 방법은 대부분 자연과 하나님 등에게서 찾아진 것들이다. 이와 관련하여 누구도 계절과 기후의 변화 그리고 감정의 소모가 인간의 삶 특히 질병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질병치유를 위해 산과 들에 들어가 자리를 잡아 걷고 달리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에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이들 ‘자연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고 그것들이 질병치유방법 등으로서 뿌리를 두고 있는 이론적 배경과 실천방법이 근본적으로 동일함을 이 글에서 입증하였다. 또한 어느 질병이건 관계없이 치유과정에서는 최소한 기후 등의 자연적 요소와 마음의 평화와 같은 감정적 요소가 반드시 질병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변함없이 유지되어왔고, 미래에도 유지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사실 및 경험적인 차원에서 『내경』과 성경의 질병치유방법은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는 가운데 질병치유 등에 계속 기여하리라고 본다.

둘째, 철학적 측면이다. 『내경』은 훌륭한 철학서이다. 고대이후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해 온 분야들이 『내경』에 많이 포함되어있다. 그것들은 예컨대 기와 관련한 존재론, 기의 작용과 관련한 인식론, 질병치유와 관련한 인간론 그 이외 도덕론 등으로서 철학적 관점에서 앞으로 계속 연구 과제라고 본다. 특히 운·기이론에서 자연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를 인체의 장·부에 연결시키는 인식의 방법과 그 틀은 탁월한 업적이면서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고 생각한다. 즉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읽고 그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십간·십이지이론을 비롯하여, 밤낮과 계절의 순환에 따른 기상변화를 읽고 예측하여 그 값을 십간·십이지로 산출하여 인간에게 적용하여 질병까지도 치유하게 하는 그 메카니즘은 인류의 가장 탁월한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논리적 측면에 의해서도 『내경』은 재조명되어야 한다. 여기에 『내경』의 이론이 성경의 원리와 동일함을 인정받게 되면 『내경』의 발전은 물론 복음 전파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 문헌

1. 기초문헌

- 최형주 해역. 『황제내경 소문, 영추』전 5권. 서울: 자유문고, 2004.
『NIV 한영스터디성경』. 김창영 감수. 서울: 생명말씀사, 2009.
『가톨릭성경』. 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회, 2009.

2. 한글문헌

- 김교빈 & 박석준 외. 『동양철학과 한의학』. 서울: 아카넷, 2005.
김남국. 『하나님과 악의 인과성문제』. 백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김남수.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사역』. 서울: 서로사랑, 2007.
김동현. 『역으로 보는 시간과 공간』. 서울: 한송미디어, 2008.
김신형. 『황제내경의 천문·역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박주현. 『천간지지』. 서울: 동학사, 2011.
손영규. 『황제내경과 성경』. 서울: 한국누가회출판부, 2004.
유장림. 『황제내경 I, II』. 김수중·박석준·조남호·정우진 역. 서울: 청홍, 2009.
임응추. 『운기학설』. 이재석 역. 서울: 동문선, 2003.
임병식. 『바울과 이제마의 만남』. 서울: 가리온, 2002.
임양근. 『백진』. 서울: 정담, 2003.
장기성. 『한의학의 원류를 찾다』. 정창현, 백유상, 지우창, 정우진 역. 서울: 청홍, 2008.
장립문. 『기의 철학』. 김교빈 외 역. 서울: 예문서원, 2012.
정경호. 『운기학설의 이론 및 운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전한호. 『육체와 영혼의 관계』. 서울: 카톨릭사상 36, 2007.
콜린 우르크하트. 『치유함을 받으라』. 이광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8.
켄 브루. 『하나님의 병고치는 권세』. 조종남 역. 서울: 서로사랑, 2007.
켈시, M. T. 『치유와 기독교』. 배상길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 2000.

3. 영어문헌

- Gerhard Kittel, Gerhard Friedrich. Theologic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ranslated by Geoffrey W. Bromiley.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Michigan, 1974.
John Wilkinson. The Bible and Healing. printed by British Printing Company at Exeter. 1998.
John Wimber & Kevin Springer. POWER HEALING.